

6월 2023

라고나브 선교 소식



다시 기초를 놓으며...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또 그의 손이 성전을 완성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너희가 알 것이다.

“시작이 초라하다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스룹바벨의 손에 측량줄이 있는 것을 보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 일곱 눈은 온 땅을 두루 돌아 살피시는 여호와와 눈이다.” (스 4: 9,10)

“시작이 초라하다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3년간의 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또 그 보다 더 긴 4-5년 간의 고통스런 아이티 폭동기간을 지나면서
이번 3월로 운행 중단되어 마지막 항공선교회 경비행기를 타고
라고나브 섬을 빠져 나오면서 이곳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배웅하던 모습들,
언제 다시 돌아 올지 모르는 점점 멀어져 가는 라고나브 섬을
바라 보면서 나의 마음은 저 검푸른 바다 속으로 가라 앉습니다

또 다른 나의 고향이자
나의 또 다른 가족들이 살고 있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것 저것 가르쳐 준
라고나브 섬을 뒤로 하면서 이곳에서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볼 때
나는 우주 속을 떠 다니는 검고 작은 먼지처럼 하찮음을 느낍니다.

그때, 주님은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버려진
그 메마르고 황폐해진 땅에 새로운 성전을 시작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 너는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제 내가 그동안 이 땅에 뿌린 많은 이들의 기도와 땀과 헌신을 통해
일하겠고 이 곳에 다시 새로운 나의 성전을 세우고 사람들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 땅에, 오랫동안 굶주린 그 땅에
그 분 스스로 일하고 계심을 지금 목도하며 놀라며 찬양을 드립니다
그 곳에 새로운 교회가 일어나고 학교가 지어지고 새로운 아이들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곧 수년 내에 그토록 기도하던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일들이 초라하고 하찮게 생각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결코 우주의 작은 먼지가 아닙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함으로 우리는 바로 우주처럼 위대하고 광대합니다

라고나브 섬에서 1.

< 예수 소망학교 프로젝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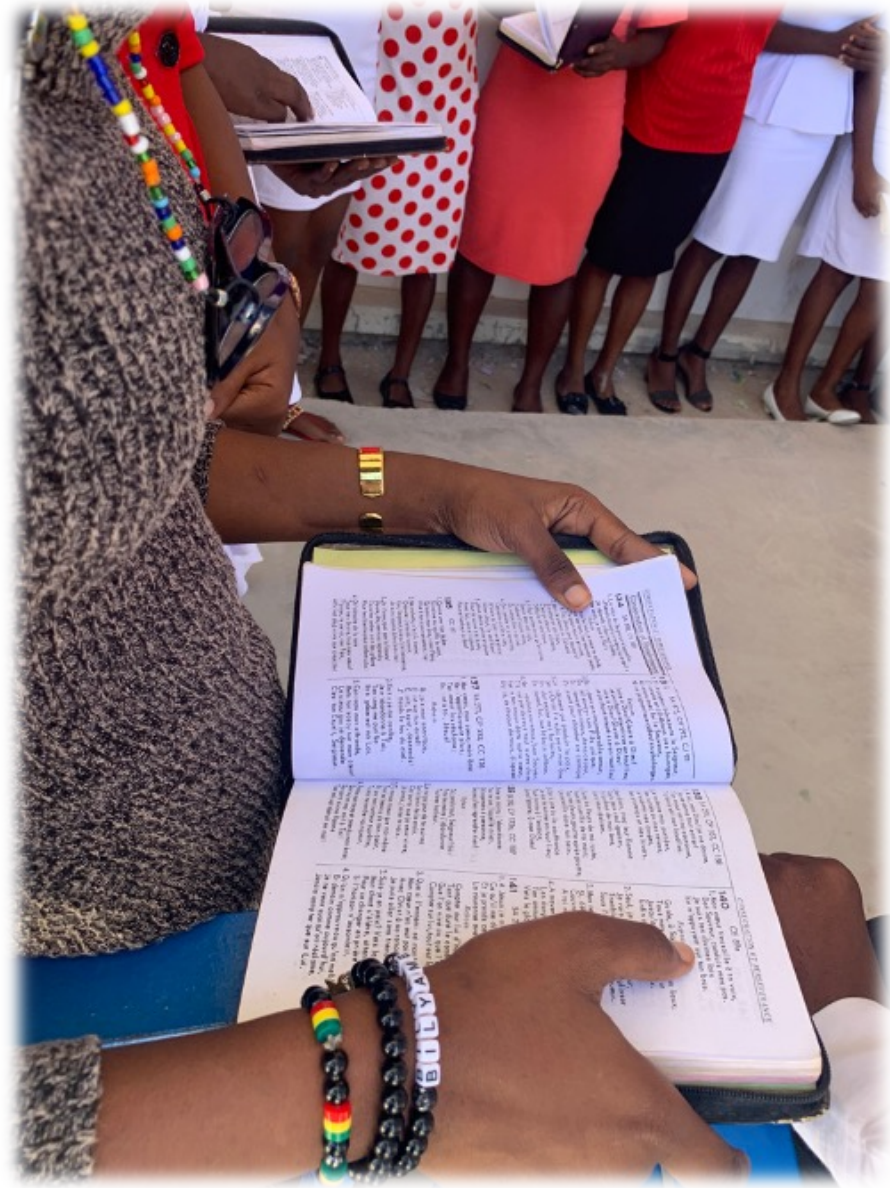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예수 소망학교
건축을 시작 하였습니다. 요즘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시기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학교사역을 미룰 수가 없어 믿음으로
먼저 시작 하였습니다.
그동안 후원하던 아이들을 한 곳에 모아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 시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학교를 통해 많은
아이들이 주님의 군사로 자라나는
그런 귀한 모판이 되길
소망합니다



라고나브 에서 2.

<바이블 프로젝트>

많은 아이들이 성경을 가지고 싶었지만 ,
읽고 싶었지만
책값이 너무 비싸 엄두도 못내고 있었는데
여러 손길들을 통해
학생들이 점차 성경책을 가지게 되어
정말 감사일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바이블 프로젝트 통해 성경책을 갖고
읽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위해 동참해 주신 여러 동역자분들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라고나브 에서 3.

<만나 프로젝트>

갱단들로 인해 4-5년간 지속적인 고립으로
라고나브 사람들은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과
굶주림 가운데 있습니다. 돌산으로 이루어져
경작할 곳도 없고 잡목들을 베어 숲으로 만들어
팔아 근근이 살아가던 이들에게 참으로 혹독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오래된 영양 부족으로 많은 장애인들과
빈민가 아이들에게 틈틈이 기회될 때마다
긴급 구호 식량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일들이지만
주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며
현지 사역자들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산티아고 에서 1.

대학 캠퍼스 사역을 준비하면서

Hola,. Cómo estás

저희 부부는 도미니카 공화국 산티아고
도시에서 아이티인 유학생들 사역을
준비하기위해 열심히 스페인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학원에 다니면서
많은 아이티 젊은이들을 사귀고 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기초 어학코스를
마쳤지만
스페인어는 여전히 큰 어려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Jourdain Jubertto 이야기

쥬텅을 처음 만난 것은 8년전 그가 라고나브 산 속 마을 어느 교회에서 어른들 속에 끼여 열심히 복을 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기특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후원자를 연결하고 저희 센터에서 8년간 훈련도 받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가야했지만 아이티 치안 불안으로 대학 다니기가 쉽지 않아서 도미니카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한달 전 버스를 타고 곳 곳에 있는 갭단들을 피해 장장 14시간의 여행 끝에 무사히 산티아고에 도착했습니다. 평생 섬에 살다가 난생 처음 햄버거도 먹고 많은 차들을 보면서, 다른 언어, 인종 차별, 등 또 복잡한 도시 속에서 처음 적응하는데 많이 힘들어 했지만 지금 어학공부를 하며 대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학과 엔지니어 공부를 해서 다시 라고나브로 돌아가서 목회를 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라고나브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을 더 초청해서 크리스천 리더쉽으로 계속 훈련시킬 예정입니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산티아고에서 3

UTESA 대학 캠퍼스에서

저희들의 2기 사역 중 가장 중점적인 것이
아이티 유학생 대상으로 제자훈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산티아고 주변 도시에 아이티 학생들이
공부하러 최소한 1만명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라고나브 학생들 포함해서 캠퍼스
공동체 제자 사역을 시작 중에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땅을 떠나서 언어도
다르고 차별도 심한 이곳에서 배움을 위해 와
있는 가난한 아이티 학생들을 돕고 이들을
제자 삼고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 가도록
훈련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중 얼마는
졸업해서 아이티로 파송하고 또 선교사
비전을 품은 이들은 서북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는 것이 산티아고 캠퍼스 사역의
목적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성령님께서
이들을 통해 캠퍼스 부흥과 젊은 선교사들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기도와 사역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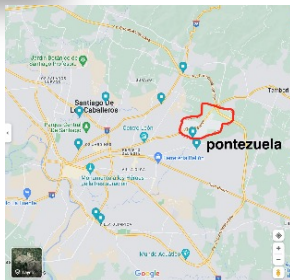


CSI (Clinic de salud Interl de Jubileo)

산티아고에서 4.

CSI 클리닉 시작

늦은 저녁 현지 교회에서 기도회 참석 중인데
급하게 나를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여자가 배가 아파서 내가 왔다는 말을
듣고 왕진을 요청하였습니다.
어려 보여 나이를 물으니 15세라고 하는데
진찰해보니 인심이었습니다. 배가 아파서
약을 먹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이티 사람들이 이 곳에 살면서 대부분 불법
체류자들이어서 병원도 제대로 갈 수 없어
작은 질병에도 쉽게 악화되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산티아고에서 대학 캠퍼스 사역을 하는 동안
동시에 이 곳에 사는 아이티 이주민들을 위한
진료소 사역 필요성이 많아 여기 현지
교회들과 함께 작은 집을 빌려
시작하였습니다. 글로벌 케어 팀들과 함께
이동진료, 환자 교육, 일차 진료, 임산부 관리
프로그램, 치과, 현지 의료인 교육 등을
중심으로 사역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많은 외부 의료팀들의 참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산티아고에서 5.

숨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도미니카 사람이든, 아이티 사람이든, 세계
어디서이든 곳곳에 하나님의 참된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들이 신실하게 교회와
지역을 섬기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비록 성경 지식이 모자라고
많은 교육도 받지 않은 이들이지만 나보다 더
성숙한 모습들을 볼 때 많은
부끄럼을 느낍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만나지 못했던 몇몇
선교팀이 방문하고 이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이들을 통해 성령님께서 새로운 사역의
문들을 열고 확장해 나감을 보고 홀로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찬양하고
의지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 사역을 스스로
이끌어 가심을 보고 깊은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인사를 전하면서...

지금도 저희들의 사역에 기도로
물질로,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신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전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 아이티 라고나브 섬에서 건축 중인 교회와 학교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 도미니카 내 아이티 유학생 대상 캠퍼스 사역에 필요한 선교센터와 학생들을 훈련시킬 팀들이 잘 구성되도록
- 곧 개원할 산티아고 클리닉이 잘 준비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과 치유의 능력이 흘러 가도록
-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티 땅이 속이 안정을 되찾고 복음으로 새롭게 부흥되는 나라가 되도록